

도루 성공률 꼴찌 팀이 '올해의 프로야구 챔피언'

# '한국시리즈 우승' LG, 실패가 두렵지 않았다

오지환 "적극적인 주루 시도 통해 도전적으로 바뀌어"  
 염경엽 감독 "망설임 없애고 자신있는 야구 분위기로"

LG 트윈스는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세 시즌을 제외하고 매년 포스트 시즌에 진출했다. 이쯤 되면 강팀으로 분류되기에 충분하지만 좀처럼 정상에는 오르지 못했다. 페넌트레이스를 잘 치르고도 가을 야구에만 서면 부담감을 떨치지 못한 듯 허둥거리는 모습이 자주 나왔다. 2013년, 2022년에는 정규시즌 2위로 플레이오프(PO)에 오르기도 '업셋'(정규시즌 하위 팀이 플레이오프에서 상위팀을 이기는 것)을 당하며 KS 티켓을 손에 넣지 못했다. 하지만 올해는 달랐다. 1994년 이후 29년 만에 정규시즌을 1위로 마친 LG는 KS에 직행했다. 최후의 무대에서도 무너지지 않았다. 2002년 이후 21년 만에 KS에 오른 LG는 KT 위즈를 시리즈 전적 4승1패로 물리치고 챔피언 타이틀을 거머쥐었다. KS 최우수선수(MVP)로 선정된 LG 주장 오지환은 이전 가을과 달라진 점을 묻자 '주루 플레이'를 떠올렸다. 오지환은 "염경엽(LG) 감독님께서 시즌 초부터 적극적인 주루 플레이를 주문하셨다. 시도를 많이 했고, 죽기도 많이 죽었다. 밖에선 '이게 뭐야'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런 과정을 거치며 선수들이 도전적으로 바뀌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러 "덕분에 어린 선수들도 주루를 하지 않고 자신감 있게 플레이할 수 있었던 것 같다"고 덧붙였다. 2023시즌을 앞두고 LG 지휘봉을 잡은 염경엽 감독은 일찌감치 공격적인 주루를 예고했다. 작전야구에 능한 사령탑인 만큼 놀랍지 않은 선언이었지만, '결과'에는 물음표가 붙었다. 올해 LG는 144경기에서 267차례의 도루를 시도 했다. 이 부문 2위 두산 베어스의 181차례와 비교해도 압도적이다. 반면 166번을 성공하는 동안 101번이나 실패해 도루 성공률은 10개 구단 중 최하위인 62.2%다. 일반적으로 도루 성공률이 75% 이상은 꽤 인정 받는다는 점에서 LG의 주루는 합격점을 얻기 어려웠다. 주루사(78), 견제사(15) 부문에서도 1위의 불명예를 썼다. 지나치게 공격적인 주루로 흐름을 끊는다는 비판은 그래서 계속됐다. 하지만 염경엽 감독은 "상대에게 우리가 언제든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을 인식시켜야 한다"며 뜻을 굽히지 않았다. 발야구 논란 속에도 LG는 순항했다. 팀 평균자책점(3.67), 팀 타율(0.279) 부문 모두 선두에 오르며 안정적인 투타 전력을 앞세워 순위표



지난 13일 서울 송파구 잠실야구장에서 열린 '2023 신한은행 쉐 KBO 한국시리즈(KS)' 5차전 kt 위즈와 LG 트윈스의 경기. 6대2로 LG 트윈스의 승리. 통합스코어 4대1로 한국시리즈 우승을 차지한 LG 트윈스 선수들이 시상식에서 트로피를 들고 기쁨을 나누고 있다.

최상단을 차지했다.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린 후 염 감독은 많은 비난을 샀던 주루 플레이가 결국은 팀을 바꾸기 위한 작업 중 하나였음을 고백했다. 염 감독은 "뛰는 야구에 대해 한참 말이 많을 때 엄청 고민을 했다. 하지만 결국 뛰는 게 절대적인 목표가 아니었다"며 "우리 팀에 필요한 부분은 망설임과 초조함을 없애고 더

자신 있는 야구를 하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게 우리 LG가 성공할 수 있는 첫 번째 야구라고 생각했다"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망설이지 않고 당당한 야구를 할 수 있는 팀을 만들고 싶은 게 내 목표였다. 그런 부분을 선수들이 함께 끝까지 노력해주면서 지금의 좋은 결과물을 만든 것 같다"고 했다.

그렇게 실패를 통해 성장한 선수들은 더 큰 무대에서 겁 없이 배트를 휘두르고, 뛰었다. 정상을 맞보면서 또 한 단계 도약했다. 염 감독은 "이 우승은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한다. LG가 정말 강팀과 명문 구단으로 갈 수 있는 첫 걸음을 뒀다"며 "계속해서 좋은 과정을 만들면 결과는 따라올 것"이라고 더 먼 미래까지 바라봤다. /뉴스

"싱가포르, 약체 아나  
 진중하게 준비할 것"

클린스만 감독, 북중미  
 월드컵 지역예선 앞두고  
 수능 앞둔 수험생도 격려

한국 남자 축구 대표팀을 이끄는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사진)이 수능을 앞둔 수험생 격려와 함께 첫 실전이 될 싱가포르전 응원을 바랐다.



클린스만 감독은 오는 16일 오후 8시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싱가포르와 2026 국제축구연맹(FIFA)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지역 2차 예선 1차전을 치른다. 11회 연속 월드컵 본선을 향한 시작점이자, 클린스만 감독 부임 후 첫 실전 경기다.

클린스만 감독은 하루 전인 15일 오후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진행된 경기 전 공식 기자회견을 통해 "싱가포르를 절대 약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약체라고 우리가 당연히 이긴다는 것 보다는 내일 진중하게 준비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전했다.

싱가포르전이 열리는 16일은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당일이다.

이에 클린스만 감독은 "월드컵 예선은 상당히 긴 여정이다. 우리의 여정도 시작되지만 내일 한국의 많은 수험생들이 중요한 날을 맞는 걸로 안다. 나도, (주장) 손흥민(토트넘)도 내일 수능을 보는 수험생들에게 좋은 행운과 결과가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시험을 잘 치르고 우리를 응원해주면 감사하겠다"며 대표팀을 향한 지지도도 희망했다. /뉴스

## 전북체육 관심 'UP'... 체육 교류 이뤄지나

베트남 문체부 등  
 전북체육회 찾아



베트남 문화체육관광부 국장을 비롯한 관계자들과 체육대학교 총장 등 약 15명이 15일 전라북도체육회를 방문했다.

베트남 정부가 전북 체육에 대한 남다른 관심을 보이면서 향후 활발한 국제 체육 교류도 가능할 전망이다. 15일 전라북도체육회(회장 정광선)에 따르면 이날 베트남 문화체육관광부 국장을 비롯한 관계자들과 체육대학교 총장 등 약 15명이 도 체육회를 방문했다. 이들은 전주대학교와 전북종합스피드 등 도내 일부 체육 시설을 둘러본 뒤 도 체육회를 찾아 체육 시설 및 실업팀 운영 현황, 화원단체(종목단체·시군체육회) 등을 청취했다. 또, 체력 단련장과 스포츠과학센터, 스키시장 등 도 체육회관의 시설도 견학했다. 특히, 전지훈련과 체육 프로그램 등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고, 도 체육회는 전북이 전지훈련 메카임을 적극 강조했다.

베트남 관계자들은 전지훈련을 비롯한 각종 체육 교류 등 전북도와 상호 협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도 체육회 이종석 사무처장은 "전북

과도 체육회를 방문해 준 베트남 문화체육관광부·대학 관계자들을 환영한다"며 "이번 방문을 계기로 베트남과 활발한 체육 교류가 이뤄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뉴스

## 박지성·관 니스텔로이, 네덜란드 PSV 연수 전북현대 유망주 격려

"한 단계 발전하는 계기 되길"



이를 만난 것이다. 전북에 따르면 박 디렉터와 관 니스텔로이는 훈련장을 방문해 선수단을 격려했으며, 훈련을 마친 뒤에는 함께 식사를 하며 조언을 해줬다. 박 디렉터는 "(전북 유스) 선수들의 수준이 높고 네덜란드에서도 경쟁력이 있는 부분들이 많아서 PSV 선수들에게도 많은 자극이 되고 있다"며 "이

번 연수를 통해서 선수 개개인이 단점을 극복하고 장점은 극대화 해 한 단계 발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북은 유망주들과 함께 하성우 코치를 동행시켜 선수 관리와 훈련 육성 방식 등 다양한 협력과 지도자 교육도 병행하고 있다. 하성우 코치는 "어린 선수들이라 보니 장기간 해외 체류로 조금 지쳐 있었는데 박 디렉터와 관 니스텔로이를 만난 후 생기가 도는 등 큰 동기부여가 된 것 같다"고 밝혔다. 전북 관계자는 "이번 교류 후 PSV 코칭 시스템에 따라 장단점과 성장에 필요한 보강 프로그램까지 결과 보고서를 별도로 받아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뉴스

프로축구 K리그 전북현대는 네덜란드에서 연수 중인 15세 이하(U-15) 팀 유망주들을 격려하기 위해 박지성 테크니컬 디렉터와 네덜란드의 전설적인 공격수 퀴트 관 니스텔로이가 현장을 찾았다고 15일 밝혔다. 전북은 해외 교류를 통한 유스 선수들의 성장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김예건 등 유망주 6명을 선발, 지난달 19일 네덜란드 PSV 아인트호벤으로 5주 연수를 보냈다. 전북은 지난 4월 박 디렉터와 함께 유럽에서도 유스 시스템으로 유명한 PSV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PSV만의 특별한 연령별, 세션별, 포지션별 프로그램을 연수받고 있는 6명의 유망주가 박 디렉터와 관 니스텔로

축! 전주매일 창간

www.sgcenergy.co.kr

### 자원순환형 에너지가 만드는 지속 가능한 세상

#### Sustain Grow Change

SGC에너지는 고품질의 증기 및 전기를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기후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친환경 통합에너지 기업'입니다.

에너지 시장의 변화를 이끌어 가기 위해 바이오매스 에너지 확대, 탄소제로를 위한 이산화탄소 포집·활용, 수소연료전지발전 등 신재생에너지 밸류 체인(Value Chain)을 구축하여 'Clean Energy'를 제공하는 통합에너지 기업으로 성장하고자 합니다.

ESG경영을 통해 지속가능성(Sustain) 성장(Grow)과 변화(Change)를 이룩하겠습니다.

SGC 마태크리стал
SGC 솔루션
SGC 그린파워
SGC 다목적발전
SGC 퍼브릭스